

곡성군, 관광택시 ‘색다른 여행 경험’ 선사한다

이동수단 넘어 지역 명소 해설
여행 가이드 역할·사진 촬영도
주요 관광상품 최대 30% 할인
“서비스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곡성군이 대표적인 관광 서비스 ‘곡성 관광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관광택시’가 올해로 9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를 위해 군은 최근 관광택시 기사들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객 응대 방식, 지역 명소 안내 방법, 안전 운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드백과 개선 제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에 참여했다.

곡성 관광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맞춤형 여행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숨은 명소까지 안내하는 특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친구, 연인,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군은 올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관광택시 이용 시 주요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섬진강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는 20%, 집라인 20%, 패러글라이딩 30%, 곡성스테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여행지에서 감성적인 사진을 택시 기사가 직접 찍어주는 ‘추억 담기’ 서

비스는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관광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곡성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관광택시는 기본 3시간에 7만원, 초과 시 시간당 2만원의 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약은 전화(1522-9053)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2년 연속 상생 기부

담양군 행정과는 지난 26일 곡성군 인구정책과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협력 증진을 위해 2년 연속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담양군 행정과 인문학교육팀장과 곡성군 인구정책과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기부행렬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었으며,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또한 두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최근 담양군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계 인구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1년간 관내 6개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 제공하는 부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연속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역도 살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 축산농가 지원 나서
‘폭염 피해 최소화’

장성군이 하절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우선 순위는 ‘군민 건강’이다. 방문 간호사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 경로당에서 건강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폭염 상황 비상 연락망도 구축했다.

군은 8월까지 고혈압·당뇨·치매 환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필 계획이다. 부채, 영양식, 파스 등이 들어 있는 ‘여름나기 꾸러미’도 제공한다.

폭염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장성군의 축산농가 규모는 총 794농가로 한우와 젖소, 돼지, 꿀벌 등을 기르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축사 냉방설비 등을 현장 점검하고, 총 7회에 걸쳐 ‘축산환경 및 소독의 날’을 여는 등 일찌감치 폭염에 대비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에 날씨 정보와 대응 요령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현장 점검반도 편성할 계획이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소사육 농가 장비 지원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등 지원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계기상기구가 2024년을 두고,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착한가게 12개소 신규 가입
곡성군

곡성군은 지난 24일 곡성군청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번 착한가게 캠페인에서 신규로 12개소가 착한가게로 참여하면서, 군 내 총 30개소의 착한가게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로 참여하면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게 된다.

신규로 가입한 착한가게는 가람드(대표 노계숙)와 곡성농협하나로마트(대표 김완술), 곡성축협 순한한우명품관(대표 정희수), 롯데리아 전남곡성점(대표 안영미), 보건약국(대표 조종훈), 옥과 고속철물(대표 허화중), EDIYA곡성점(대표 노운아), 중화요리황제(대표 남만우), 초원식당(대표 이재혁), cafe마루(대표 강소영), 하송(대표 조세원), 함지박식당(대표 조유정) 등 12개소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은 “착한가게 가입에 동참해 주시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동 권한대행은 “따뜻한 온기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착한가게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더 살피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인니 식품박람회 H-푸드 홍보
이상의 함평군수

이상의 함평군수가 2024 인도네시아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spitality Indonesia, FHI)에서 함평 농특산품 H-푸드의 현장 홍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이상의 함평군수가 23일부터 26일까지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에 참여, 함평 H-푸드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제식품박람회에 자치단체명으로 참여하는 전시부스는 함평군이 유일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로 18회째 맞는 FHI 박람회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며 먹고 신다는 의미로 개최되는 만큼, 현지업체와 바이어에게 함평 농특산품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이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여름철 원예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폭염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지원

화순군은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여름철 원예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역병, 탄저병, 무름병 등 각종 곰팡이·세균 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작물 생리장해 및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의 해충 발생도 많아져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작목별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인 고추는 병에 걸린 잎이나 열매

를 발견 즉시 제거하고, 비 오기 전·후로 예방·치료용 살균제 살포 △시설 과채류는 직사광선, 고온 등에 의한 일소과, 녹숙과 발생을 막기 위해 잎으로 과실을 가려주거나 차광, 환기, 적정 관수, 안개 분무 등을 통해 고온 피해 예방 △과수의 경우 주기적인 관수와 초생재배를 통해 고온 피해를 예방한다.

낙과된 과실에서 탄저병 등 다양한 병원균이 전염되므로 신속한 제거와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고온이 지속되면 바이러스, 나방, 응애 등의 해충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며, 바이러스는 감염 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병주는 즉시 제거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장마와 폭염 등으로 작물 재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줄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2곳 선정

나주시 개인 정원 2곳이 도내 예쁜정원으로 선정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노안면 소재 ‘계화정원’이 최우수상, 석현동 소재 ‘정하네 엄니정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민간이 가꾼 예쁜 정원을 발굴해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관광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에서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43곳이 응모해 1차 서류, 2

차 현장 심사를 거쳐 총 9곳이 우수정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원은 예쁜정원 상장과 현판,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민간정원 선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노안면 금안한옥행복마을에 자리한 계화정원은 사계절 꽃나무와 초화류, 야생화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 색과 향기로 마을을 오가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한다.

정하네 엄니정원은 꽃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합작해 만든 정원으로 다양한 수목과 작은 연못, 석등, 옛날 기와, 야생

화, 다육이 등이 조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열 곳 수목원 부럽지 않게 정원을 곱게 가꾸은 콘테스트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가볼만한 정원이 많아져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초대 대회 때 나주시 교동 소재 3917마중이 우수상을, 빗가람동 소재 행복이 가득한 집 정원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